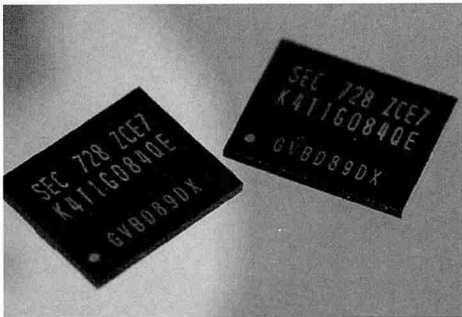


**삼성전자, 50나노급 D램 업계 최초로 인텔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지난 해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는 50나노급 1기가 DDR2 D램에 대한 인텔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50나노급 D램으로는 업계 최초로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서, 특히 DDR2 제품 중 최고속인 800Mbps(초당 800Mb 데이터 처리) 제품에 대해 양산 가능한 수준의 제품 특성을 확보했음을 공인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부터 업계 최초로 60나노급 1기가 DDR2 D램을 양산 개시하여, 70나노 ~ 80나노급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업계 수준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0나노급 D램 최초 인증을 통해 삼성의 차세대 D램 기술이 절대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검증된 삼성전자의 50나노급 1기가 DDR2 D램은 현재 주력 양산 공

정인 80나노 대비 2배, 60나노급 1기가 DDR2 D램 대비 5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인텔 인증을 완료한 삼성전자의 50나노급 D램 기술은 2008년 상반기 양산 예정이며 DDR2뿐만 아니라, DDR3, 그래픽, 모바일 등 전체 D램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07년 60나노급, '08년 50나노급 1기가 D램을 양산 선행하여 타사 대비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1기가 D램 시장에서 절대 경쟁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24시간 생산하는 터키 LG 에어컨 공장**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터키 LG 에어컨 공장이 7월부터 24시간 생산 체제를 시작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터키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고 인근 중동 국가들의 경기 호황으로 에어컨 주문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 에어컨 법인장 손병욱 부장은 “에어컨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 대외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하고 있다”며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 말까지 24시간 가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당초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100만대의 에어컨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주문량이 늘어 올해 생산

목표를 110만대로 높여 잡았다.

한국과 터키 두 나라의 에어컨 합작법인 LG전자 터키 법인은 현지 에어컨 시장에서 '절대 강자' 자리를 굳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LG 에어컨은 터키 시장에서 5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05년 50%, 2006년 52%, 올해는 53%를 차지하며 2004년 이후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에어컨 합작법인은 지난 99년 설립돼 2001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며 LG전자와 터키의 KOC 그룹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생산량의 약 70%는 터키 내수 시장에 공급되며, 나머지 30%는 수출하고 있다. 수출 지역도 유럽 11개국, 중동 14개국, 아프리카 16 등 41개 국에 이른다.

터키 에어컨 시장은 약 85%가 가정용이며, 최근에는 이스탄불 인근 지역의 건설 경기 붐이 일며 시스템 에어컨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루프트한자사와 프리미엄 마케팅 전개	2007/08/02
2	삼성전자 LCD, 8분기 연속 매출 1위	2007/08/01
3	삼성전자, 애니콜 UCC폰 페스티벌 개최	2007/08/01
4	중국 최고급 영재들의 삼성전자 나들이	2007/07/29
5	삼성전자, 뉴욕서 휴대폰 콘서트 후원	2007/07/29
6	삼성 네트워크 모니터, 해외 공공기관 수주 활발	2007/07/26
7	삼성전자, 차세대 CPU 탑재한 데스크톱 2종 출시	2007/07/25
8	삼성전자, 디스플레이포트 30인치 LCD 개발	2007/07/25
9	삼성전자 LCD모니터, IDEA 2007 금상 수상	2007/07/23
10	삼성전자, 중소기업과 엑세서리 사업 공동 추진	2007/07/22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프리미엄 와이브로폰 출시	2007/08/02
2	LG전자, 애플조성아와 공동마케팅	2007/08/02
3	LG트롬, 누적 생산 1,000만대 돌파	2007/07/30
4	LG전자 초콜릿폰, 일본에 디자인 한류 전파	2007/07/26
5	LG시스템에어컨, 해외시장 공략 강화	2007/07/25
6	이라크 젊은 인재, LG전자서 IT 연수	2007/07/24
7	LG전자, 홈엔터테인먼트 데스크노트 출시	2007/07/23
8	LG전자, 2분기 글로벌 영업이익 4,636억 원	2007/07/19
9	LG전자, 50인치 풀(Full)HD PDP TV출시	2007/07/18
10	LG전자, 뮤직폰 '뮤지크(MuziQ)' 미국 시장 상륙	2007/07/17

### 대우일렉,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판촉

대우일렉이 마케팅 비용 절감과 고객 수요층 확대를 위해 8월까지 아시아나항공과 가전 제품 공동 판촉 마케팅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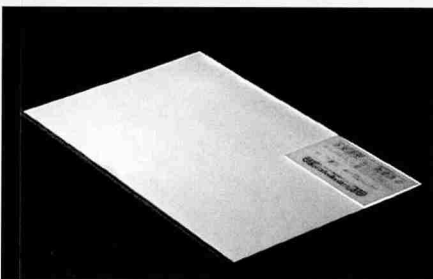
대우일렉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2007 쿨 서머' 이벤트를 마련,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신형 양문형 냉장고와 사이판 무료 왕복항공권을 증정한다.

또 아시아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대우일렉 스탠드형 에어컨과 오븐 전자레인지 등 가전 제품을 최고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대우일렉은 이번 마케팅이 해외 신혼 여행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 부부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항공사와 손잡고 공동 마케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전 업계가 타 업종과 공동 판촉에 나섬으로써 양측의 타깃 고객층을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이미지를 등에 업는 후광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아이디에스, 초박형 LED용 도광판 시험양산



아이디에스는 이달 중 초박형 발광다이오드(LED)용 도광판(LGP) 시험 양산에 들어간다고 지난 6월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0.45mm 두께의 초박형 12.1인치 도광판으로 사출식의 기존 제조방식과 달리 잉

크젯을 이용해 프로그램된 패턴을 인쇄하는 프린팅(MLAP) 방식을 적용, 비용 절감과 공정 단축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냉음극형광램프(CCFL) 광원 대신에 두께와 밝기 구현의 용이성, 환경문제 등으로 시장 도입이 늘고 있는 LED 광원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이디에스 측은 "현재 주요 세트업체들과 제품 인증테스트를 진행중"이라며 "이달 중 시험 양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ED 도광판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LCD 전체 면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부품으로 아이디에스는 향후 이 제품을 탑재한 자체 백라이트 유닛(BLU) 생산까지 검토중이다.

### LS산전, 중국 산동성 개폐기 시장 1위



LS산전은 다렌법인이 중국 산동성 개폐기 시장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LS산전 다렌법인은 중국 산동성 전력국이 지난달 발주한 지상개폐기와 분기함 입찰 두 건을 260만달러에 낙찰받아 현지시장 선두로 올라섰다.

LS산전이 수주한 이번 프로젝트는 산동성 전력국이 발주한 프로젝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인근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LS산전 관계자는 "LS산전이 산동성 개폐기 시장에 진출한지 4년에 불과한데도 ABB, 지멘스 등과 경쟁에서 이겼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중국 전력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산동성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여타지역의 전력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S산전 다렌법인은 지난해 2900만달러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준공 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삼성전기,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 수여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전기는 LED부품 관련 협력회사인 연호전자(주)와 신기술과 신공법 5건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해 1회 때 매일경제 회장 표창에 연이은 수상이다.

삼성전기는 자사 컨설팅 전문인력들을 연호전자(주)에 파견, 삼성전기의 연구, 제조, 품질 노하우들을 전수함으로써 개발기간 6개월 단축, 생산성 2배 향상, 수율 11% 개선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는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중소기업간 박람회로써 대기업과 납품 및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우수사례를 포상하여 협력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아름다운 동행상'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대화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생박람회로써 6월 19~20일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장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70여 업체가 참여해 중소기업과의 구매상담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팬택계열, 미 AT&T 통해 디자인 특화폰 선보여**



팬택계열은 미국 이동통신사 AT&T를 통해 디자인 특화폰 '팬택 C150'을 출시한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팬택 C150'은 두께 12.7mm의 슬림한 바타입 GSM 휴대폰. 순백색에 심플한 디자인으로 동양의 미와 미니멀리즘이 함께 묻어나는 디자인 특화폰이라고 팬택측은 설명했다. 특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미를 살린 입체감 있는 슬림 디자인으로 '2007 iF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팬택 C150'은 특히 모서리를 각지지 않게 둥글게 처리하고 제품 전면을 불록하게 디자인해 얇고 작으면서도 편안한 그립(grip)감을 느낄 수 있다. 블루투스도 지원, 휴대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둔 채 무선 이어폰으로 걸리거나 거품 없이 통화할 수 있으며 PC로의 무선 파일 전송과 프린터를 통한 무선 포토 프

린팅 등이 가능하다.

'C150'은 이 밖에도 내장형 카메라, MP3 벨소리, 모바일 이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팬택계열 해외마케팅 본부장 임성재 상무는 "팬택 C150은 심플함과 품격이 동시에 느껴지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우수한 그립감을 통해 편안함을 주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이티, M&A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디지털 디스플레이 중견업체인 현대아이티는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업공개매각을 실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투자자가 회사의 신주와 회사채를 인수해 현금을 유입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아이티는 매각 주관사인 한국신용정보와 한울회계법인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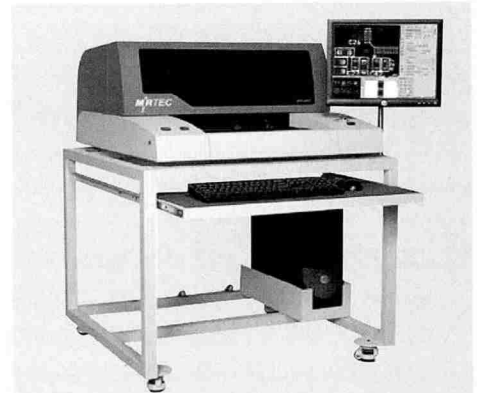
현대아이티는 최종 입찰서의 제출마감은 내달 3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내달 중에는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대아이티는 M&A 추진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전세계적으로 구축된 해외 판매망을 통한 영업 추진 및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재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아이티의 현재 자본금은 128억원이며, 지난 3월22일 제3회 관계인집회를 통해 확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은 406억 원이다.

**미르기술, 프로스트앤드설리번 품질우수상 수상**

미르기술이 검사장비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프로스트앤드설리번 2006 품질리더십상'(Product Quality Leadership Award)을 수상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이 상은 세계적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이 매년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우수한 품질관리 능력을 보인 업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미르기술이 표면실장(SMT) 공정을 거친 인쇄회로기판(PCB)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탁상형 자동광학검사(AOI) 장비 분야의 기술 혁신과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탁상형 검사 장비에 5개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평면 및 측면 영상을 고속 촬영 및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차세대 검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신속한 고객 대응 및 지원 체제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찬화 사장은 "고객의 필요에 맞는 고성능 검사 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0년 창사 이래 최고의 국제적인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디보스, 미국 A/V 전시회 수주상담**

디보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형 A/V 전시회인 인포컴 2007 전시회에 참가, 대형 거래선과 연이은 수주상담을 벌였다고 6월 22일 밝혔다.

인포컴2007은 지난 6월 19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디보스는 4개 부스에 32인치 IPTV를 비롯해 46, 57, 82인치 디지털 사인보드, 터치스크린 기능의 디지털사인보드, 40인치 멀티비전 등을 선보였다.

82인치 디지털사인보드는 시판되지 얼마 안 되는 제품이어서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디보스 관계자는 "미국 병원용 TV사업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대형 거래선과 연이은 수주 상담으로 하반기에 미국내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포컴은 세계적인 규모의 오디오 비디오 전시회로 올해 전시회에는 전세계 840개 업체가 5500여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알티전자, 1.5mm LCD용 LED패키지 세계 첫 개발**



알티전자가 노트북PC나 LCD TV용 액정화면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인 신개념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체 626패키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월 500만개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설비 체제를 갖췄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 부품은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 LCD)용 백라이트유닛(BLU)에 쓰이는 LED로 종전에는 두께를 2.5mm 이하로 줄이는 것이 힘들었으나 1.5mm로 크게 낮춰 모니터를 10% 정도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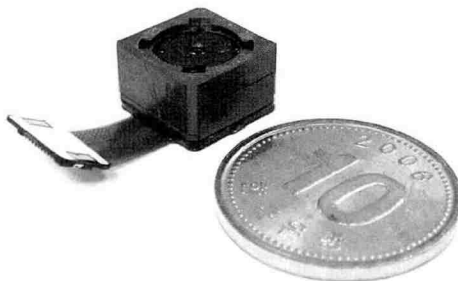
초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밝기와 색상이 10% 이상 개선됐고 전원 수명도 50% 이상 연장돼 고품질 TV나 내비게이션, 각종 디스플레이 제품, 광고판 조명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휴대폰 부품, LED, 통신장비 등 하이테크 사업 3개 분야로 재편한 알티전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0%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

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알티전자는 지난해 매출 1030억원에 영업이익 42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매출목표는 전년 대비 2배 신장한 200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4배 이상 늘어난 18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래처도 삼성전자 의존도에서 벗어나 LG전자 소니 노키아 모토롤라 등 세계적인 기업과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LG이노텍, 초슬림 300만화소 카메라 모듈 개발**

LG이노텍은 두께 6.1mm에 불과한 300만화소 자동초점 카메라모듈을 개발했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을 오는 12월부터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LG이노텍 이번 제품에 자사 핵심기술인 광학 및 초소형 모터제어 기술을 적용했다. 자동초점 기능은 독자 개발한 초절전,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적용했고, 고해상력 구현을 위해 최적화된 광학계를 사용했다.

새 카메라모듈은 자연색과 동일한 수준으로 선명한 화질과 자동초점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두께를 초슬림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LG이노텍은 VCM(Voice Coil Motor)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채택하고, 비구면 광학계 렌즈를 이용해 카메라모듈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자사 VCM 기술은 모듈의 소형화와 낮은 전력소비를 구현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얇은 5.0mm의 200만화소 자동초점 카메라모듈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함께 차량 전장 및 노트북용 카메라모듈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쿠쿠전자, 3년 연속 에너지위너賞**



생활가전업체 쿠쿠전자가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에너지위너賞'을 수상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에너지위너상은 소비자 시민모임이 주관하고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쿠쿠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에너지효율 부문과 대기전력 부문 2개 분야에서 전기압력밥솥 2종이 위너상을 수상했다.

쿠쿠전자는 슬립(sleep)시스템, 소프트스팀캡, DSP인버터회로 등 효율적 전력시스템을 채용해 기존대비 약68%의 획기적인 전력소모 감소효과를 가져온 기술이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쿠쿠전자 구분학 대표는 "이번에 수상한 밥솥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1등급 선풍기 등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원메디칼, 일본 현지법인에 3.7억 출자**

자원메디칼은 지난 7월 12일 해외마케팅 강화 및 사업영역확대를 목적으로 일본 현지법인인 오와메디칼에 3억 7599만 5000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자원메디칼은 오와메디칼의 지분율 66.15%에 해당하는 주식 2,150주를 갖게 된다.

한편 오와메디칼은 전자동 협업계 체지방 측정기 사업을 하는 자본금 4억 9812만 5000원 규모의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